신원사 쪽에서 바라본 계룡산

최연의 산 이야기〈39〉 계룡산 1

후천개벽의 새 시대는 계룡산이 중심이다

백두대간은 동해를 끼고 남으로 내려오다가 태백산을 빚어 올린다. 서남쪽으로 방향을 튼 백두대간은 소백산을 거쳐 삼남지방을 동서(東西)로 가른다.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으로 솟구쳐 오른 후 지리산에 이르러 크게 용트림한 다음 뻗음을 마감한다.

백두대간이 지리산에 이르기 전에 백운산 어름에서 서쪽으로 큰 산줄기가 하나 갈라져 나오는데 이를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이라 한다. 다시 여기에서 북쪽으로 뻗는 산줄기가 금남정맥(錦南正脈),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호남정맥(湖南正脈)이다.

계룡산(鷄龍山)은 금남정맥의 끝자락에 솟아 오른 명산이다. 백두대간 상의 백운산에서 계룡산에 이르는 금남정맥은 태극(太極)형상으로 굽이치며 뻗어간다. 그래서 계룡산을 산태극(山太極)이라 부르기도 한다.

백두대간에서 금남정맥이 갈려 나오는 어름인 진안은 금강(錦江)의 발원지이다. 금강은 금남정맥의 동쪽 기슭을 따라 굽이 굽이 흘러가다가 계룡산을 북쪽에서 휘감아주며 서해로 들어간다. 이 또한 태극 형상으로 굽이쳐 흐른다. 이를 수태극(水太極)이라 한다. 계룡산은 산태극, 수태극의 회룡고조(回龍顧祖)의 천하명당인 것이다.

회룡고조란 용이 몸을 돌려 조산(祖山)을 돌아보는 형국을 말한다. 〈주역(周易)〉에 "태극(太極)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근원이며 이로부터 만물(萬物), 만상(萬像)이 갈라져 나왔다"고 설명한다.

계룡산의 이름은 풍수에서 최고의 길지인 명당으로 치는 '금계포란(金鷄抱卵)'과 '일룡농주(日龍弄珠)'에서 비롯됐다.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는 "나라의 도읍터로는 계룡산 아래 금강이 제일 좋고, 송악이 그 다음이며 한양이 셋째요, 넷째는 평양이고, 다섯째가 경주다. 경주는 바다 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인 원주는 터가 너무 좁다. 강화도 마리산은 비록 바다 한가운데 있으나 왕이 머물 땅이지만 얼마 못가서 떠나게 된다"고 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개국 초기에 계룡산 근처에 정도하려고 2년간 궁궐 축조공사를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 상소로 결국은 두 번째로 좋다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계룡산은 이씨 왕조가 들어올 땅이 아니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이는 하륜(河崙)이다.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지 않아 중요한 교통수단인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신도안(新都內, 〈한국도참〉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이상적 지형)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흉하다는 것이다.

계룡산 일대가 풍수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정감록(鄭鑑錄)〉에 '송도 500년, 한양 400년, 계룡산 신도 800년, 가야산 가조 1000년'이라는 기록 때문이다. 계룡산 신도안은 한 때 토속신앙의 성지가 돼 명성을 날리다가 삼군 통수부인 계룡대가 이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신도안에서 바라보는 천황봉은 좌우의 균형이 딱 맞는 삼각형의 모습이다. 단정하고 웅장한 삼각형 모양의 산을 풍수학에서는 자기성(紫氣星)이라고 부른다. 이런 곳은 대성자나 훌륭한 왕자를 낳고 기르는 기운이 있다.

이런 연유로 〈삼한산림비기〉에는 "계룡산에 도읍하면 밝은 임금과 의로운 신하가 연이어 나온다"고 했다.

신도안 한가운데는 중봉(中峯)이라는 야트막한 봉우리가 솟아 있다. 작은 책상과 흡사하게 생겼는데 천황이 쓰는 책상이라 해 '어대(御臺)'라고 부른다.

중봉 앞에는 작은 들판들이 펼쳐져 있고 그 건너편에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이어진다. 이 봉우리들은 신도안의 안산(案山)으로 신선들이 무리지어 늘어선 형상이다.

주산인 천황봉이 상제형(上帝形)이고 앞의 안산이 신선(神仙)들이니 신도안은 하늘의 임금이 뭇 신하들과 조회를 여는 것처럼 생긴 형국인 상제봉조형(上帝奉朝形)의 명당이다.

이러한 명당 터는 왕조시대나 자본주의 시대와 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성인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성자들의 시대에나 크게 쓰일 땅이다.

〈정감록〉에는 "한양의 기운이 다하면 정(鄭)씨가 새 나라를 세우고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긴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룡산 일대는 이상향(理想鄕)을 건설하려는 수많은 선인들이 찾아들었다.

새 시대는 바로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부터 찾아오는데 〈격암유록〉에는 2020년에 성자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전한다. 물질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새 시대가 임박하지 않았겠는가?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산골 송년회

아내는 묵을 쑤었다. 도토리가 풍년이었던 작년, 길가에 도토리나무가 늘어선 모운동 가는 산길에서 주워 묵을 해먹고 남은 것을 가루로 빻아 냉장고에 보관해 놨었다. 올해는 바쁘기도 했지만 도토리가 흉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예 주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솔이네로 가는 골짜기 길은 얼음이 녹지 않은 채 빙판을 이루고 있었다. 다행히 바퀴자국을 따라 얼음이 녹아있어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솔이네가 영월읍내 아파트에서 살다가 가재골로 들어온 지도 10년 세월이 뚝딱 흘렀다. 솔이네집은 강을 건너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골짜기로 접어들어 굽이굽이 몇 굽이를 돌고 돈 지점에 있다. 쓰러져가던 옛집을 고쳐 살면서 나무와 흙으로 새집을 지었다. 이어서 작업실 겸 민박 손님을 맞을 요량으로 본체의 반 만한 집을 또 지었다. 그렇게 집을 고치고 짓는데 5년 남짓 걸렸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집 짓는 모임에 합류해서 기술을 익히고 그들과 함께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 부부가 함께 흙을 이기고 벽에 붙이는 작업 끝에 만든, 땀으로 빚어낸 작품들이었다.

집 둘레에 심어놓은 묘목도 이젠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 집 앞에는 언제 또 만들었는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스로 연결하여 작은 연못도 만들어 놓아 제법 운치도 느껴졌다. 본체 옆 작은 공간에 정자도 만들어 갖출 건 다 갖춘 품새였다.

마당에 나와 있는 솔이 아빠의 손을 잡으니 두텁고 커다란 손이 믿음직스럽다. 나보다는 대여섯 살 아래지만 머리가 허연 모습이 오히려 형님 같은 사람이다.

아홉 집 남녀가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였다

어째 노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디…

옛집 나무대문을 본떠서 만든 바깥문을 밀치고 들어가 안쪽 문을 여니 사람들이 꽉 찬 거실 공간이 나를 맞는다. 맞아주는 사람들의 손을 익숙하게 잡아주며 키 낮은 탁자 앞에 주저앉으니 과메기와 술잔이 놓여있다. 이유야 각자 다 다르지만 산을 찾아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정이 느껴진다.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다. 어찌어찌 살다보니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일 년에 한두 번이나마 함께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얘기가 된 것이었다. 여름엔 계곡에서 물놀이 하며 먹고 마시며 놀고, 겨울엔 원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세상과 자신의 얘기를 나누며 아홉 집 남녀가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였다.

한 집에서 한 가지씩 가지고온 음식이 차례로 상에 오르는 가운데 술잔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해물전과 약밥이 오르고 잡채와 닭도리탕까지 모습을 보이자 상에 빈자리가 없는 가운데 떠들썩한 자리가 이어진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고추가 더 병이 많더라구. 약도 노지 고추보다 엄청 더 많이 쳐대고, 역시 자연스럽게 기르면서 손이 많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구.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름이 낀 쇠고기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마블링'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병든 고기 아닌감. 건물 안에 가둔 채 사료를 들입다 먹여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몸에 좋을 거냐구."

오가는 말들 위로 문득 '은하철도 999' 노래가 울려퍼진다. 노래가 한두 곡 더 불려진 뒤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 사는 우구네가, 방안에서 다른 집 아이들과 놀던 아들을 불러내며 일어선다. 골짜기 길이 얼어서 산 밑에 가서 체인을 치고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앉아 있던 부인네들이 같이 가자며 일어났다.

"이거 오늘 자리가 너무 일찍 파한 거 아녀? 어째 노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디…"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쉬워하는 나와 '술자리가 길어지면 서로 좋을 것 없다'는 아내와의 다툼만 해가 가도 변함이 없다.

시인

현지사 소개 그 열네번째 주제 – 천수경 –

본 광고는 현대불교신문사의 논지와 전혀 관계 없는 광고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는 힌두교의 시바신과 비쉬누 신에 대한 귀의 · 찬양문!!

진정한 관음신앙의 혁명!! – '영산불교의 〈새천수경〉'으로 올바른 관음신앙이 부활한다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상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자들과 친숙한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특히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는 불자들이 가장 즐겨 독송하는 다라니입니다. 지금도 수시로 독송되며 대비주 철야 기도가 성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수경을 비판하며 심지어 그 핵심을 이루는 대비주를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 있던 터이고 여기에 정법의 올바른 기둥을 세운다는 대의를 더한다면 그 진통은 새 생명을 위한 짧은 산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수경에 나타난 관음신앙과 대비주에 나열된 명호의 문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귀의 · 찬탄과 올바른 관음 신행자가 되고자 하는 발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그렇기에 관음신앙을 표방하는 대비주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여러번 등장하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어인 대비주를 한글로 해석해 보면 '관자재보살님'에 대한 귀의로 시작하여 '니라칸타–청경관음(푸른 목을 지니신 분)'을 비롯한 '바라하 목카–멧돼지의 모습을 한 분'과 '싱하 목카–사자의 모습을 한 분'을 찬양합니다. 그 밖에 '먀가라 잘마 이바사나야–호랑이 가죽을 두른 분'과, '가릿나 이나–흑사슴 가죽을 걸친 분'을 비롯하여 여러 명호를 불러 찬양합니다. 이 명호들은 문언적 해석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힌두교의 신을 지칭하는 명호입니다.

천오백년 역사를 거친 대비주의 권위

천년이 넘는 대비주의 권위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역사적 사료조차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자들에 의해 대비주의 해석상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대비주를 변화시키거나 파기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권위 위에 서서 이 다라니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주인이신 관세음보살님 혹은 또 다른 붓다의 지위에서의 사자후 일 것입니다.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대성자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렇게 큰 결함을 지닌 다라니가 천년 넘게 지속된 이면에는 대성자의 부재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직 공성(空性, 마음자리)의 철견과 증득만을 목표로 부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을 무형의 비인격적 이법(理法)인 공(空)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고로 대성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의 철견을 시작점으로 해서 염불 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로 들어가 32상80종호의 무량억종광 빛의 몸으로 이루어지신 무아 속 절대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법 · 보 · 화 삼신(三身)을 이루어야 붓다의 경지입니다. 오직 붓다라는 대성자의 출현만이 대비주의 진실을 열어줄 열쇠인 것입니다.

'붓다회상 현지사'에서 대비주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외도의 다라니입니다. 다라니는 화두와 달리 타력(他力) 중심이기 때문에 그 힘의 출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비주는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외도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비주를 통해 희유한 경계에 도달하거나 가피를 받아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힘의 원천이 불(佛)의 기운이라 할 수 없어 정법인 불법과는 나날이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행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붓다의 안목으로 〈천수경〉을 검토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새천수경>!! 이것이 다르다

1.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삭제하고 불보살님의 다라니로 이루어진 〈시무외청정 여의원만성취 제대다라니〉를 내놓았습니다.
2. '관세음보살님'의 붓다(정법명왕불)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잘못 알려진 좌우보처를 바로잡았습니다.
3. '관세음보살님'과 별개의 인격체이신 '대준제보살님'의 명호와 밀적조역제대보살님들을 분리하여 배열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변화신도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4. 각주와 해설을 첨부하여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새천수경〉의 구성을 우리말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5. 부록으로 '현지사 백팔대참회문'을 첨부하여 다겁생 동안 무수한 생을 살아오면서 신 · 구 · 의로 지은 악업의 허물을 참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천수경〉 80면, 5000원 –

《 신간안내 》

■ 21세기 대안(代案) 불교사상 '위대한 영산불교'
선불교, 위빠사나, 티벳불교 사상과 비교 논평.
수행론(수행방법), 수행목표(구원관), 불신관, 영혼체론, 생사관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한다. 부처님께서 유형의 초월적 인격체로서 계심을 확고히 하고 세존의 법의 가르침대로 육도윤회의 실존을 주장한다. 수행의 처음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를 설명하고 무아를 재정립한다.

■ 새천수경 해설서 근간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 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